

##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한국학 연구\*\*

블라디미르 푸체크(Vladimir Pucek)\*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동양 연구는 아랍과 페르시아 연구, 이집트학, 인도학 혹은 아시아학 등과 함께 비교적 긴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오래전에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다른지역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극동 지역 연구의 여러 분야는 비교적 늦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연구는 금세기의 50년대에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다.

1945년의 체코슬로바키아 해방 이래 이 나라에서 이루어진 동양 연구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과제와 결부된 것이었다.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의 민족해방 운동과, 세계정치사에서 이들 대륙의 역할 증대,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와 이들 국가 인민들간의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유대 강화는, 보다 긴밀하게 현대적 삶과 사회적 요구들을 수용하고 동양 연구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게 만들었다. 이들과의 접촉은 또한 동양의 여러 나라 언어와 그들 나라가 지니고 있는 제반문제들에 대해 정통한 지식을 갖춘 훈련된 전문가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 때 시작된 새로운 연구 분야중의 하나가 한국 연구였다. 한국학에 대한 개념 정립과 발전은 많은 시대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는 북한과 외교적 관계를 맺었고, 한국전쟁(1950-1953)과 전후 복구 사업에 형제적인 물질적 도움과 도덕적 지지를 제공했다. 경제·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적인 긴밀한 접촉은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의 상호 발전을 위해 시작되었던 것이다.

---

\* 체코슬로바키아 찰스 프라하대학 교수

\*\* 이 논문은 제8차 퇴계학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임

이러한 상황은 한국 연구 분야에 세가지 주요 과제를 던져 주었다. 우선 첫째로는 한국의 언어, 사회 그리고 문화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언어와 역사, 문학 그리고 현대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젊은 전문가의 훈련과 교육을 조직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끝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는 현대의 발전과, 그 국민들의 조국 근대화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 그리고 한국의 진보적인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체코의 인민대중에 소개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객관적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알로이스 풀터(Alois Pultr) 교수는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 그는 엄청난 정력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한국 연구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데 자신을 바쳤다. 그는 이를 위해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만 했다. 이때까지 체코에서는 이 영역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전통이 전혀 없었으며 실제로 한반도와는 직접적인 접촉도 없었다. 1945년까지 한반도는 40여년간 일본에 의해 점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정 주제들과 관련된 약간의 전문적인 문헌들만 있었을 뿐이다. 심지어 동양연구 센터에서도 한국 연구는 그 때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경우 중국학이나 일본 연구를 위한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풀터 교수는 풍부한 인생의 경험과 교수 경험, 그리고 동양인(특히 동아시아)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일본 연구를 통해 얻은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한국 연구에 백분 활용했다. 이러한 필수 불가결의 자질과 요건을 갖춘 덕분에 그는 한국 연구라는 새로운 과제를 떠맡을 수 있었다.

1906년에 태어난 풀터 교수는 1923-32년까지 프라하에 있는 찰스 대학(Charles University)의 철학부에서 불어와 독일어 그리고 철학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후 그는 1934-44년까지 10여년 동안 프라하의 한 중등학교(Grammer School)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 때에 이미 그는 동양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을 연구하

기 시작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폴터 교수는 중등학교 교사직을 떠나 동양학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그 곳에서 그는 체코슬로바키아의 동양학 개발을 위한 준비작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는 교육자로서의 다년간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동양 연구소의 동양어학 주임직을 훌륭히 수행했다. 거기서 그는 스스로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으며, 처음에는 역시 일본에 관해 연구하였으나, 멀지않아 한국 연구가 그의 주 전공이 되었다.

그는 전쟁이 끝날 때 쯤 서서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1945년부터는 한국어 공부에 전력을 기울였다. 다른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옛날 한국어 교재와 문법교재(*Missionaires de Coree: Grammaire coreenne*, A. Eckhardt, G. Ramstedt)는 실질적으로 그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우선 그의 개척자적인 노력에는 일제 점령기 때 유럽으로 이주하였던 몇몇 한국인과 40-50년대에 일시적으로 프라하에 살았던 한국인들의 개인적인 도움이 컸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선우학원(Sunoo Hag-won)씨 였고, 다른 한 사람은 50년대에 북한으로 돌아 간 고고학자 한훈수(Han Hun-su)씨 였다. 한국 연구를 위해 한층 더 유리한 상황은 체코슬로바키아와 북한간에 외교 관계를 맺게된 이후에 맞게 되었다.

그 때 폴터 교수는 새로운 학문적인 자기훈련 과정을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갔다. 그는 동양 언어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교과서를 집필했고, 1949년에는 『신동양』(*Novy Orient*)이라는 잡지에 2회분을 발표했는데, 한국어로 쓰여진 첫 번째 체코 교재였다.

50년대 초, 한반도 전쟁의 발발로 한국문제가 전세계적인 관심사로 부각되었을 때, 이 새로운 연구 분야는 한국 역사와 문학에 대한 소개를 포함해서 폭넓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1950년 한국연구는 찰스 대학 철학부에서 독립적인 분과 학문이 되었고, 폴터 교수는 1951년에 이

새로운 분과학의 책임자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1952년에 그는 동양 언어학 분야의 철학 박사가 되었으며 1966년에는 조교수가 되었다.

그의 전공이 한층 더 성숙하고 체코의 한국 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1954년 그의 북한 방문을 통해 이루어 졌다.

거의 4반세기 동안 풀터 교수는 찰스대학 철학부의 동아시아 역사 철학과와 아시아 아프리카 학과에서 한국 연구 주임교수로 재직했다. 1954년에는 그의 첫 번째 주요 저서인 한권의 한국어 교재가(역시 독일어로 번역되었음) 콘사이스인 체코-한국어 사전으로 출간되었다. 그의 과학적인 노력은 한국 시의 분석 작업으로 나아갔는데, 특히 한국 중세 시인인 윤선도의 시와 근대 시인 조기천(Cho Ki-ch'on)의 투쟁적인 운문시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한국 문학과 언어에 관한 풀터 교수의 다년간의 연구는 1973년에 그의 해박한 지식을 활용한 『한국 문학에 대한 역사적 조명』(*Prehled dejin korejske literatury*)이라는 책으로 완성되었고, 1978년에는 음운론과 어형론으로 구성되는 그의 『한국어 문법』(*Korean Grammar*) 제1권이 완성되었다. 철학부에서 한국 연구 분야에 대한 그의 작업은 그의 제자중의 한 사람인 푸체크(V. Pucek)에 의해 계속되어 왔다.

한국 연구가 오늘날까지 프라하에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의 동양 연구소와 어느정도로는 브레티슬라바에 있는 슬로바키아 과학 아카데미에서도 성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은 풀터 교수의 선구적인 업적 덕분이다.

프라하에 있는 찰스대학 철학부의 아시아 아프리카 학과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한국에 관한 강좌를 개설하는 유일한 곳이며, 그 곳에서 한국의 언어, 역사 그리고 문학이 대학교육 수준에서 가르쳐 지고 있다. 이 학과의 수업 년한은 5년간이며, 두가지 분야의 필수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두가지 연구 경향의 결합은 지난 10년 동안 여러모로 변화되어 왔다. 예를들어 한국 연구는 동아시아의 역사 혹은 일반적 역사, 일본 등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10-15년 동안 가장 빈번한 결합은 러시아와 관련된 것이다.

매주 총 30시간 중 10시간은 한국 연구에 할당되고, 또 10시간은 2차 분과학문(예를들어 러시아어), 그리고 나머지 10시간은 철학사, 정치 경제, 일반 언어학 개론, 덧붙여 세계 언어(영어, 불어와 독일어) 등과 같은 소위 일반적인 과목들을 배우도록 하고 있다. 대략 5년동안 1500시간이 한국 연구에 소요됨을 의미한다. 이 전체 시간중 가장 많은 시간이(대략 850시간, 57%) 한국어를 배우는데 소요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현대 한국어에 관한 것이다. 90시간은 제2동양어 즉 중국어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중국 한자와 중국어 문법에 대한 개론적인 것이다. 한정된 시간 때문에 커리큘럼이 한문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는 못하다. 그것이 하나의 큰 결점이긴 하지만 연구에 종사할 졸업생들은 대학원 차원에서 한문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또 다른 커리큘럼의 큰 부분은 한국사(90시간)와 한국 문학사(60시간)가 있다. 한국어, 역사와 문학의 강의는 세미나에서(매주 2시간, 총 240시간) 보충된다. 그런데 어떤 전문적인 강의들은 역시 주로 학생들의 학위 논문 테마와 관련되는 문헌들을 읽고 있다. 5년간의 과정은 학위 논문의 작성과 국가 시험 응시로 종결된다.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한국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제한된 취업 가능성 때문에 최근에는 한국을 연구하려는 지원자들을 5년에 한번씩 등록을 받아왔다.

1950년 그 첫 번째 과정이 시작된 이래 대략 25명 정도가 한국학을 전공하여 졸업했다. 그 졸업생들의 연구 경향은 주로 철학적인 것에 집중되었고, 6명의 졸업 논문만이 한국역사를 다루었다. 졸업 논문의 테마들과 마찬가지로 커리큘럼도 근현대 문제들에 치중되고 있다.

한국 역사에 대한 간략한 개관은 역시 아시아 아프리카 역사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언어를 연구하는 학생들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 전공하는 중국이나 일본 연구 학생들에게도 강의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위해, 우리 학과에서는 지난 15년간 한국과 동아시아의 지리, 한국 언어와 한국 문학사에 관하여 8개 주제로 나누어 교과서를 만들어 왔다.

동시에 이 새로운 분과 학문의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한국 도서관이 그 학과에 만들어 졌다. 우리 학과의 동아시아 도서관 부서에는 대략 한국 관계 도서가 1100권(주로 해방후 남·북한에서 발간된 서적)과 한국에 관한 600여권의 유럽국가 언어로 쓰여진 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 도서관의 새로운 책들은 주로 자료 교환이나 유럽 대학의 한국연구센터와 함께 만든 책, 그리고 평양의 김일성 대학, 혹은 한국연구기금(Korea Research Foundation), 대우재단(Daewoo Foundation)이나 한국국제문화재단(International Cultural Society of Korea) 등을 통해 모은 것이다.

나는 나의 이 학술대회 참가가 우리 도서관과 다른 대학 도서관과의 접촉을 확대해 갈 것으로 믿으며, 특히 한국 도서관들과의 접촉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도서관들도 우리의 도서관과도 자료의 상호 교환이 더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한국 연구의 짧은 전통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현재 한국 유학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나 전공한 학자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학을 완전히 소홀히 취급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철학사와 특히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유학의 역할과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발전과 이 지역의 사상, 윤리, 문학, 그리고 예술에 미친 유학의 의미를 감안하여 비록 한정된 강의 시간이지만 유학을 이해시키는데 적절한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학의 문제와 그것의 발전과 의미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는 한국 역사와 문학에 관한 강의 부분에서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철학적 이데올로기적 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과 마찬가지로 동양을 연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예외없이 강

조하고 있는 것이다.

유학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대학의 역사철학과에서 철학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역시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강의는 다른지역 전공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비록 한국 연구 부서가 철학부에서 매우 생소한 분과이기는 하지만 중국 연구의 확고한 전통에 의존할 수 있었고, 이미 19세기 후반기부터 시작되어 프라하 대학에서 발전되어 왔다.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 과학적인 노력이 있었고 이 때 이미 중국 고전들이 체코에서 번역 출간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이 체코인들에게 상당히 소개되어 왔다. 이런 요소들이 중국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었고, 일본, 한국, 베트남과 같은 새로운 연구분야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되었다.

이와 연관해서 우리는 우선 1890년 찰스 대학 동양 언어학 교수로 임명되었던 루돌프 드보락(Rudolf Dvorak :1860-1920)의 놀라운 업적을 언급해야만 한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자 였는데, 중국학 외에도 아랍, 페르시아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탁월한 전문가였다. 1915-16년에 그는 이 대학의 부총장에 임명되었다. 중국학 분야에서도 특히 그는 중국 사상과 윤리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수행했다. 그의 많은 업적<sup>2)</sup> 중에 시경과 도덕경<sup>3)</sup>의 체코어 번역이 가장 큰 공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드보락 교수의 개척자적인 업적은 해방후 동아시아 언어·역사학과 교수가 된 자로슬라브 프루섹크(Jaroslva Prusek:1906-80)에 의해

2) 드보락(Dvorak, R.) : 『중국의 종교』(*Chinas Religion*)

" : 『공자의 생애와 사상』(*Life and Thought of Confucius*), 프라하 1899.

" : 『동양윤리학사』(*History of Ethics in the Orient*), 제1권 공자, 프라하 1904.

3) 『시경』(*Shijing*), 프라하 1897, 1898, 1901; 『노자의 도덕경』(*Lao-c's Canonical Book on Tao and Virtue*), 프라하 1920.

계승되었고, 나중에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과학아카데미 동양학 연구소 소장이 되었다. 비록 그의 연구 초점이 중국 문학사와 초기 중국사 분야였긴 하지만 논어<sup>4)</sup>의 체코어 번역과 동아시아 사상에 관한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sup>5)</sup>.

과거 몇 10년 동안은 중국 사상의 여러 측면을 소개하는 연구 혹은 광범위한 일반적인 것들, 예를들어 왕충<sup>6)</sup>의 저작이나 道<sup>7)</sup>에 관한 에세이인 도덕경의 번역 작업 등, 많은 것이 체코어로 번역되었다. 학생들을 위한 두가지 중국 철학의 교재도 1971년에 출간되었는데<sup>8)</sup>, 중국 철학과 유럽 사상과의 관계는 쟈플리너(A. Zempliner's)의 포괄적인 논문인 『근대 유럽철학에 있어서 중국 철학』(프라하, 1965) 등에서 분석 논의되었다.

신세대 동양전문가들과 동아시아 철학이나 중국에 관한 연구자들의 활동 덕분에, 그들의 저작속에서 동아시아 사상의 여러 유형을 서술한 일본과 한국의 저자들이 여러 유형의 백과사전과 전문분야 사전들(예를 들어 아시아 아프리카 저자 사전 2권, 프라하 1967)을 새로 편집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문학에 대한 다양한 번역 활동이 전개되면서, 그 번역들에 자연히 심도 있는 해석과 주석작업이 수반되었고, 동아시아 문화유산과 과거의 동양 사상의 이해에 대한 지식의 넓히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동아시아 사회의 현대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유학의 기능을 다루는 내적인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

4) 『공자의 말씀』(*The Talks of Confucius*): 『논어』(*Lunyu*), 프라하 1940.

5) 예를들어 『중국사회의 세가지 교의』(*Three doctrines of society in China*), 프라하 1940; 『중국의 문학과 문명』(*Chinese Literature and Civilization*), 프라하 1947.

6) 『왕충의 논형』(*Wang Chong: Lunheng*), T.Pokora 역, 프라하 1971.

7) 『도덕경』, B.Kerbsova 역, 프라하 1971 ; 『道 고대 중국의 책들』(*Dao. Texts of ancient China*), 프라하 1971.

8) 『중국의 철학』(*Chinese Philosophy*), Strelecck, J., 프라하 1971.

『중국의 철학·역사·문헌입문』(*Introductory into Chines Philosophy. History and Texts*), Kral, O.-Strelecck, J., 프라하 1917.



다.

한국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짧은 전통과 전공자의 수적 열세로 인하여 그 활동이 그다지 확산되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어떤 저작들도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의 유학이나 다른 철학 혹은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한국의 고전문학과 주석들에 대한 연구나 번역은 간접적으로 한국의 중세 사상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된다. 예를들어 한국 신화와 전설에 대한 번역, 김시습, 김만중, 박지원의 저작들에 대한 번역, 정철과 윤선도의 시, 심청전, 기타 시조 선집의 번역 등이 그런 것이다<sup>9)</sup>.

과거에 한국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풀터 교수의 교재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문학의 역사적 조명(1973)”과 푸체크의 “한국 연구와 언어학 개론(1982)”이 그것이다. 유학 교육의 문제, 특히 교육에 관한 이율곡의 관점들에 관한 것은 바린카(J. Barinka)의 중요한 연구 테마이다<sup>10)</sup>.

9) 『푸른 용의 비밀. 한국신화와 전설』, V. Pucek a J. Genzor 역, 브레티슬라바 1978.

『구룡폭포. 한국신화와 전설』, V. Pucek, -Genzor, 프라하 1973.

『김시습의 금오신화(Kumo sinhua)』, J. Barinka 역, 프라하 1973.

『김만중의 사씨남정기(Sassinamjonggi)』, V. Pucek 역, 프라하 1964.

『박지원의 양반전(Pak Chi-won: Yang ban-jon)』, J.Sram 역, 신동양 1956/3.

『박지원의 허생전 (Pak Chi-won: Hosaeng-jon)』, I. Vasilejv, Nam Ki-dok 공역, 신동양 1961/4.

『정다산(Chong Ta-san)의 저작 요약』, Z. Kloslova 역, 신동양 1962.

『Ch'ong-uyadam and Pudam』, Z. Kloslova 역, 신동양 1971.

『이규보(YI Kyu-bo)』- 12·13세기 한국의 시인, A. Pultr, 신동양 1960.

『한국의 시인 박인로』, J. Barinka, 신동양, 1961.

『정철의 시조(時調) 시 형태에 관한 논평』, V. Pucek, ACU-Orientalia Pragensia, 프라하 1969, pp. 75-86.

註 :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한국에 관해 발표된 논문, 책 그리고 번역물의 더 많은 이해를 위한 목록은 AKSE Newsletter, No. 8/1985, pp. 39-45를 참고할 것.

10) 『새 세대에 대한 한국에서의 교육 사상-유학의 마지막 살아있는 표명』,

위에서 언급한 저작들은 한국의 근대와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가 역시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연구의 일 부분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세계 여러나라에서 온 학자들이 모인 이 학술대회에 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는 여기서 얻은 자료와 이 회의 성과가 의심할 바 없이 내가 한국 유학, 특히 퇴계 선생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동시에 우리대학에서의 한국 연구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김 중 훈 譯)

---

『동아시아의 문화적 전통』, J. Barinka, 프라하 pp. 25-52.